

조선왕조실록 문헌을 통한 강원도 영동지방의 자연재해 발생 및 재난문화 사례 조사

A case study of the disaster in Yeongdong province of Gangwon-do and Disaster Culture Survey throug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배윤아*, 임수정**, 김병식***

Bae Yun Ah, Yim Su Jeong, Kim Byung Sik

요 지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홍수·가뭄·폭설·혹서·혹한 등의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였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은 논어의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새겨둘 구절이다.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는 군주(君主)의 부덕(不德)이나 실정(失政)의 소치(所致)로 여겨지고 나아가서는 왕조나 국운의 쇠퇴와도 관련이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미 과거 자연기록에 있었던 일들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경술년 현종 11년(1670년 5월 2일) 『가없는 우리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찌서 재앙은 백성에게 내린단 말인가.』 1671년 말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도 있다.

기양의례'란 가뭄,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과 불행 등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소멸하고자 거행하는 대표적인 재난문화의 종류이며 비정기적 의례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기양의례는 재난대응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양의례”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조정이 적극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각 고을의 관리와 지방군을 동원하여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부세를 견감하고 구제곡을 지급하는 등의 진휼정책이 뒤따랐다. 백성들도 오가작통제와 향약을 통해 환난상휼을 실천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비록 기술적인 부분은 미약했지만 재난대응의 체계만큼은 상당히 앞서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강원도 영동지방 자연재난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사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문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조선왕조실록, 강원도 영동지방, 재난문화, 기양의례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기상청 선진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0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정회원 · 국립 강원대학교 도시환경·재난관리전공 석사과정 · E-mail : dignity0224@kangwon.ac.kr

**정회원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 E-mail : soojeong@hanmail.net

***정회원 · 국립 강원대학교 도시환경·재난관리전공 교수 · E-mail : hydrokbs@kangwon.ac.kr